

트럼프 집권 후 첫 피격 위기...2년 만에 벌써 3번째

총격 벌어진 워싱턴 힐튼호텔, 레이건 대통령 피격 장소 역대 대통령 암살 시도에 4명 서거...“영향 큰 인물 표적”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이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로 의심된다.

이번 사건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총 세 차례나 직접적인 총격 위험에 노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24년 7월 13일 대선 후보로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받은 일이다.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로스(20)가 연설 무대에서 불과 200~300야드(약 183~274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AR-15 계열 반자동 소총으로 약 8발을 발사했으며, 트럼프 후보는 오른쪽 귀 뒷부분에 관통상을 입었다.

귀와 얼굴에 피가 묻은 트럼프 당시 후보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대피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치켜올리는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됐다.

이 피격 사건은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밀라 헤리스 부통령을 꺾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한 방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과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골프장에서 도 암살 시도가 포착됐다.

트럼프 후보가 자기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한 남성이 SKS 계열 소총을 겨는 것이다.

용의자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는 비밀경호국의 총격을 받고 달아났다가 이후 체포됐다. 그는 12시간가량 골프장 인근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여기에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사이 세 차례나 총격 시도에 노출된 셈이 됐다. 특히 이번 총격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직접적인 암살 시도로 보인다.

총격범인 콜 토머스 앨런(31)은 산탄총과 권총, 칼 등 여러 무기로 무장하고 만찬 행사장 보안검색대로 돌진하던 중 당국에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총격범이 비밀경호국 요원에게 총격을 가했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총격범이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단독 범행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날 사건이 벌어진 워싱턴 힐튼 호텔에 45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가 발생한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존 힐클리는 1981년 3월 30일 워싱턴 힐튼호텔 앞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총격 사건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해남

게 총을 쏘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조지워싱턴대 병원에서 수술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과 암살 시도가 반복돼 왔다.

1835년 앤드루 잭슨 당시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은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역사상 첫 암살 시도로 꼽힌다.

재임 중 총탄에 사망한 대통령은 4명에 이른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5년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남부 출신 배우 존 윌크스 부스의 총에 맞아 숨졌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1881년 정신 질환자의 총에 맞아 숨졌고,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은 1901년 무정부주의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중 리 하비 오즈월드에게 저격당해 사망했다.

암살 시도도 적지 않았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12년 대선 유세 도 중 총탄에 가슴을 맞았지만 살아남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총격 위협을 겪

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살인마이자 사이비 교주인 찰스 맨슨의 추종자 등에게 2년여간 두 차례나 암살 위협을 겪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사건 발생 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왜 이런 일(암살 시도 등 신변위협 사건)이 대통령(트럼프)에게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암살 사건들을 연구해 왔다”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일본 홋카이도 남동부서 지진 규모 6.1...“쓰나미 우려 없어”

27일 오전 5시 24분께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남남동쪽 143km 지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42.60도, 동경 143.1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0km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남동부 토카치군 우라호로초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강은 대부분 사람이 행동에 지장을 느끼고 고정돼있지 않은 가구는 쓰러지는 흔들림이다.

이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날 우려는 없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날 지진이 일어난 지역의 남쪽 해역인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지난 20일 규모 7.7 강진이 발생하자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일주일간 발령해 놓은 상태다.

지난 20일부터 일주일 간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홋카이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등 일본 북동부 7개 도·현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